

단수 80분 전 녹장 통보...갑작스레 물 끊겨 대혼란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단수...광주 4개 구민 큰 불편

광주 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시설이 고장나 시민들이 주말동안 단수로 큰 불편을 겪었다. 관할 기관인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고장 사실을 수시간동안 알리지 않다가, 단수 1시간여를 앞두고서야 긴급문자를 보내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광주시 남구 행암동 덕남정수장에 있는 송수관로의 메인 밸브가 열리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다.

오전 9시께 전직원을 비상 소집해 수리에 나섰다. 해당 밸브가 30여년 전에 설치돼 노후된데다 지름이 1800mm로 커 수동으로 밸브를 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밸브 고장으로 덕남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내지 못하면서 광주시 동구를 제외한 남구·서구·광산구 전체와 북구 일부 지역에 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로 인한 피해 시민은 대략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전 11시 40분께 돼서야 "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서구, 남구, 광산구에 오늘 오후 1시부터 급수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게다가 단수가 시작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께에는 북구의 일부 지역도 흐린 물 유입에 대비하라는 등의 긴급문자를 보내면서 녹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 녹장대처로 광주 시민들은 이날 하루동안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시민들은 단수가 되기 전 급하게 빨래와 설거지 등을 하기 위해 점심 약속을 취소했고, 자영업자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 하루 장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전 6시 고장났는데 통보 늦어 상가·단독주택 등 곳곳 불만 자영업자들 "장사 망쳤다" 분통 일부지역은 단수 후 문자 받기도 광주시상수도본부 녹장 대처 논란



광주시 남구 행암동 덕남정수장 관계자들이 12일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넘친 수돗물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양수기를 가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목욕탕은 단수 문자가 온 뒤로 오전에만 "목욕탕에 물이 나오냐"는 문의전화로 20여통 넘게 받았다고 전했다.

목욕탕 관계자는 "평소 주말보다 10여명 많은 손님이 몰렸다"며 "손님들은 대부분 주말 약속을 앞두고 단수로 씻지 못할까봐 걱정돼 전화로 문의한 뒤 목욕탕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상무지구에 거주하는 강모(여·60)씨는 "오후 1시부터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급하게 설거지와 빨래를 했다"면서 "갑자기 고장난 것도 아닌데 단수 1시간을 앞두고 문자로 알려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직장인 유모(31)씨는 "쉬는 날 파마하기 위해 예약하고 미용실을 찾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들기만 했다"며 "단수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모처럼 쉬는 날 다른 계획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을 맞아 여자친구와 브런치 카페를 찾은 나모(35)씨도 "단수로 메뉴가 제한돼 맛있게 먹지 못하고 나왔다"며 "단수를 늦게 알려줘 주말 데이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자영업자들도 단수로 영입에 큰 손해를 입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커피 체인점에서는 커피 판매를 중단하고 에이드와 빵 종류만 판매했다. 설거지를 하지 못하면서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커피 매장 직원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서 물이 나오지 않아 싱크대에는 머그컵, 접시 등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물을 사용해야 하는 커피를 만

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손님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없어 점심 손님 10명 중 절반 이상은 매장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다"고 말했다.

광주상수관구 장덕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미정(여·52)씨도 "물이 나오지 않아 파마, 염색 등을 하지 못해 주말 예약 손님들을 모두 놓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자체 물탱크 등이 있는 아파트, 의료기관 등지에서는 하루 정도 수돗물을 사용할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물 공급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한동안 흐린 물과 붉은 물이 나올 수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보호 해상수색 성과 없어... 오늘 3차 합동감식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어선 '청보호'에 대한 3차 합동감식이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실종자 4명의 수색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광주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목포지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과학수사지원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체한 합동감식팀이 12일 3차

합동감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차례 진행된 합동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해경측의 설명이다.

해경은 세월호를 마지막으로 합동감식을 마무리 짓고 감식 결과와 선내 CCTV 영상 등 증거물 6개를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모든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는 2-3주의 기간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지난 10일부터 '경비병행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4명의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군 합정과 관공선, 항공기 등의 수색은 종료하고 경비함정 6척과 연안 구조정 7척 등 총 13척의 선박으로 계속 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2명의 선원이 승선해 조업에 나선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전복돼 3명이 구조되고 5명이 선박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4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hb@

5·18 피해자 65명 정신적 손해배상 또 승소

계엄군 총에 실명 등

1980년 5·18 당시 여섯 남매의 엄마였던 강해중(89)씨는 자녀 세명을 데리고 화순 친정으로 피난을 가다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시력을 잃었다.

같은 해 광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했던 이형기(72)씨는 차량시위를 하다 계엄군에게 맞아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강씨와 이씨 처럼 5·18 당시 계엄군의 총알에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2021년 한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63명과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6.6%~77.1%를 인정해 정부가 정신적 손해로 각각 500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사격이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이들로 1990년 제정된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에는 옛 전남도청 인근인 광주시 동구 수기동 공업사에서 작업하다가 들이닥친 계엄군들에게 구타당해 장해를 입은 직장인과 시민을 폭행하는 계엄군을 말리다가 구타당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평생 노동능력의 80%를 상실한 채 살다가 지난해 8월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체포·구타·고문으로 입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광주 주택 화재로 어머니 사망...아들은 중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2일 광주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1시 9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층에 거주 중이던 A(여·54)씨가 사망하고, A씨의 아들 B(29)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당일 B씨는 광주자살예방센터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등에 연락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원이 경찰 등에 신고해 B씨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고, 경찰이 위치추적을 통해 B씨를 찾던 중 화재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광주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고, 경찰과 센터는 B씨의 안전 확인을 위해 수차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관계자 등은 A씨에게 B씨의 응급입원 등을 권유했으나 A씨는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안다"며 B씨의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	--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